

## 1930년대 개별 척독집 연구

- 이종국(李鍾國)의 『무쌍주해 보통신식척독』(1930)의 특징 및 의의

홍인숙\*

<차례>

1. 서론
2. 저자, 서지사항 및 편집 체제
3. 이종국의 『보통신식척독』의 문체적 특징
4. 이종국의 『보통신식척독』의 내용적 특징
  - 1) 중심 사안과 논변의 강화
  - 2) 생생하고 입체적인 상황 설정
  - 3) 척독에 대한 메타적 인식으로써의 척독론 제시
5. 『무쌍주해 보통신식척독』의 가치와 의의

### <국문초록>

본고는 1930년에 출간된 이종국(李鍾國)의 『무쌍주해 보통신식척독(無雙註解 普通新式尺牘)』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는 근대 초기 한문 서한 쓰기의 교본으로 사용된 근대 척독서 연구의 일환으로, 저자 특유의 개성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의미 있는 개별 척독집으로 본 자료의 의의를 부각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 서지사항을 검토한 뒤 문체적 특징을 살펴보고, 서한 예문들의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우선 『보통신식척독』의 서지적 사항을 점검한 뒤 저자 표기의 혼란상을 바로잡았다. 책의 표지와 판권지 등에 저자로 표기되어 있는 두 인물인 ‘김동진(金東縉)’과 ‘이종국(李鍾國)’ 중 ‘이종국’이 원저자일 가능성이 높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문체적 차원에서는 본 자료의 특징을 ‘한문 위주의 국한문체’를 택하였으나, 의도적인 난삽함이나 전고 위주의 표현을 지양하면서 낭독할 때의 운율감을 의식한 노련한 한문 문체를 일관성 있게 추구했음을 밝혔다.

\*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보통신식척독』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중심 사안과 논변의 강화이다. 이를 통해 이 책이 근대 척독서의 상투적 안부 기능을 넘어서서 전통적인 한문 서찰의 학문적 의론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 생생하고 입체적인 상황 설정이다. 이 특징은 여타 근대 척독집의 평면적이고 상투적인 설정과 달리 이 책이 구체적인 개별성과 입체적인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해석하였다. 셋째, 척독이라는 장르에 대한 메타적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 책은 당시 유행하던 상투적인 척독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좋은 척독서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이종국의 『보통신식척독』은 당대의 일반적인 척독서들과 상당히 다른 가치와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즉 대부분의 척독집들이 기 출판된 척독서들을 상호 모방하고 짜깁기하는 등 척독 자체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내용 면에서 세속적인 성공만을 선망하는 시대순응성을 보였으나, 『보통신식척독』은 한문 서한의 격조를 중시하면서 중심 사안에 대한 상세한 논변과 입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척독 장르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이 텍스트가 시대 풍조와 세태 변화에 대한 저자 나름의 비판적 가치관과 장르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근대 척독서라는 상투적인 실용서적류 또한 시대적 대응과 저자의 세계관이 담긴 개성적 텍스트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해주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보았다.

**주제어** 이종국, 『무쌍주해보통신식척독』, 노익형, 『주해부음신식척독』, 지송옥, 『부음주석신식금옥척독』, 문체적 일관성, 용건의 강화, 입체적인 상황 설정, 척독 비판, 척독론

## 1. 서론

본 논문은 20세기 초 한문 서한 쓰기의 교본 역할을 하였던 근대 척독서 연구의 일환으로, 1930년에 출간된 이종국(李鍾國)의 『무쌍주해 보통신식척독(無雙註解 普通新式尺牘)』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 척독은 한문학사의 마지막 시기에 대중들의 한문 글쓰기의 욕망과 한문 문체 및 글쓰기 규범의 문제를 고찰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군이다.<sup>1)</sup> 그러나 근대 척독은 상투적인 편지 문체를 익히게 해주는 투식구들의 모음집이자, 한문 초보자들에게 정형화된 문식을 제공해 당장 급한 짧은 편지를 쓰게 해주는 저급한 실용서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한 가치절하의 시선에는 근대 척독이 ‘繼承下書, 伏悚且慰, 伏未審~, 氣體候連享萬安, 伏喜萬萬’ 등과 같은 전형적인 한문 상투어구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진정성 있는 개별적 사연이 무시되고 ‘안부, 축하, 부탁’ 등과 같은 의례적인 상황만이 설정되고 있다는 점, 더욱이 그러한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편지 본문이 그대로 베껴지는 관행이 용인되었다는 점들이 작용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평가에는 근대 척독이라는 장르는 저자 개인의 창작성이나 작가 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몰개성적인 텍스트라는 평가가 전제되어 있다.<sup>3)</sup>

- 
- 1) 고문(古文)에 대한 새로운 문체적 실험으로 대두되었던 조선 후기 소품문(小品文)에서의 척독이 작자 개인의 문학적 개성과 수사적 표현이 극대화된 장르였던 것에 비해, 근대 척독은 상투어구와 정형화된 문식이 극단적으로 고착화된 장르였다. 따라서 근대 척독의 연원은 조선후기의 ‘문인 척독’이 아니라, 조선후기에 방각본으로 유통되었던 ‘간찰교본’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김효경, 『18세기 간찰교본 簡式類編 연구』, 『奎章閣』9집, 2003.; 류준경, 『방각본 간찰교본 연구』, 『漢文古典研究』18집, 2009. 한편 근대 척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최근 들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양상이다. 홍인숙, 『근대 척독집 간행현황과 시대별 변화 양상』, 『한국고전연구』24집, 2011.12.; 박해남, 『근대 척독 자료집 <척독원편>의 출판 현황과 배경』, 『반교어문연구』32집, 2012.; 박은경, 『文範과 時文으로서의 근대 척독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3.
  - 2) 근대 척독집이라는 장르에서 상호 모방 및 베끼기 관습이 성행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20~30년대에 가장 흔히 척독서가 편집, 구성되는 방식은 기존의 책 편집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적당히 가감하여 활용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인숙(2011), 위 논문, 340쪽.
  - 3) 박은경(2013)의 위 논문은 근대 척독을 ‘비창작물’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논문은 현대문학 쪽에서 근대 척독을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은 첫 시

그러나 척독집은 당대 신문 등 매체에 가장 많이 광고되었던 책 종류 중 하나였으며<sup>4)</sup>, 책값이 ‘육전 소설’의 무려 열 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기꺼이 구입해 보았던 책이었다.<sup>5)</sup> 어려웠던 당대의 출판 상황에서 실제로 출판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주요 수입원이 척독서였다 할 만큼 근대 출판물 지형도에서 한문 편지쓰기 교본, 즉 근대 척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문 글쓰기의 대중적 형태를 가늠하기 위한 잣대로써, 또한 한국 근대의 독특한 문화 현상으로써 척독서라는 장르를 눈여겨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근대 척독서의 종류는 거의 100~200여 종에 이르며, 현재도 계속하여 자료가 발굴되고 있는 중이다.<sup>6)</sup> 이렇듯 자료군의 모집단이 크다는 점은 그 속에 다양한 성격의 자료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는데, 실제 자료군을 꼼꼼히 살펴보면 상투적인 한문 서한이라는 일반적 특징에서 벗어

---

도라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으며, 근대 초기 저작권에 대한 설명, 당시 신문에 실린 척독 광고의 통계 및 서적 가격 조사 부분 등은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근대 척독의 비개성적 특성을 전체 자료군에 일반화하여 ‘비창작물’로 단정한 점, 근대 척독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김우균의 <척독완편>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점, 1910~30년대 척독서의 전체적인 자료 목록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6~7종의 척독서만을 언급하고 있는 점, 척독서의 실제 본문 분석은 거의 누락하고 있는 점 등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4) 이 당시 신문의 책 광고를 분석한 다음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190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소비된 책 장르가 소설→교재류→실용서류의 순서였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중 실용서류의 절반 이상은 척독류이다. 이경현 『1910년대 신문관의 문학 기획과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3. 2장 : 이기훈, 『독서의 근대, 근대의 독서-1920년대의 책읽기』, 『역사문제연구』7집, 2001. 12
- 5) 박은경(2013), 위 논문의 2장 4절에서는 당시 척독서의 가격을 조사해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척독서 가격은 책의 편폭에 따라 다양해서 소책자는 40전, 두꺼운 척독서는 1원이 넘는 가격으로 다양했지만, 대부분의 척독서들은 70전 내외의 값으로 유통되었다고 한다.
- 6) 지속적으로 자료가 발굴되는 중이므로 정교한 목록화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인다.

나는 특이한 개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즉 장르 관행이 강한 척독서 군의 내부에도 저자의 특징이나 개성, 문체에 대한 고민, 시대적 특징이 강하게 살아있는 자료들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자의 개성 및 가치관이 일정하게 반영되는 자료이자, 시대 반응의 산물로써 의미 있는 자료로써의 면모를 가진 개별 척독집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이종국(李鍾國)의 『무쌍주해 보통신식척독(無雙註解 普通新式尺牘)』(德興書林, 1930)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 척독집은 상호모방이 당연시되었던 1930년대에 출간된 척독집이면서도 단 한 편도 다른 척독집에서의 문장을 베껴오지 않았으며, 당대 세태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과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sup>7)</sup> 또한 저자 특유의 국한문체가 문체적 일관성을 견지한 채 전체 척독에 구현되어 있으며, 척독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강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척독집의 저자와 서지 및 편집 체제, 문체 등을 통해 자료의 1차적 면모를 밝힌 뒤, 이어 저자 특유의 개성이 내용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저자, 서지사항 및 편집체제

『무쌍주해 보통신식척독』(이하 『보통신식척독』)은 1930년에 덕흥서림에서 최초 출판된 척독집으로, 국립중앙도서관,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

7) 저자 표기의 혼란상 때문에 이 척독집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저자를 ‘김동진’이라고 파악하기도 했으나 ‘이종국’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홍인숙, 『1920~30년대 ‘편지예문집류 척독집’의 양상과 그 특징』, 『동양고전연구』51집, 2013. 6.

관, 원광대학교 도서관에 각각 보관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은 소화(昭和) 7년, 즉 1932년에 재판(再版)된 판본이며, 한양대본은 1934년, 원광대본은 1945년 판본으로, 현재 초판본은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8)</sup> 즉 이 책독집은 1930년에 초판본이 발행된 이후 1945년까지 15년에 걸쳐 재발간되었을 만큼 대중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던 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본<sup>9)</sup>으로, 표지와 목차, 맨 뒤의 판권지를 제외하고 본문이 시작되는 페이지를 1면으로 하여 총 164면에 87쌍의 편지 예문과 부록<sup>10)</sup>이 실려 있다. 서한 본문은 한글 독음이 부기된 전형적인 국한문체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 상단에는 한자단어를 풀이하는 두주<sup>11)</sup>가 달려있다.

이 텍스트는 근대 책독집 특유의 저작자 개념의 혼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요한 근대 책독집 저자에는 이 시기 출판사 운영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박문서관의 노익형, 회동서관의 고유상·고병교·고병돈

8) 현재 한국사자료데이터베이스상에서 확인되는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한양대, 원광대본이 전부이지만, 아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개인 소장품이 발견될 수도 있으므로 초판본의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 국중본의 형태사항은 ‘四周雙邊 半郭 17×11.2cm, 有界, 13行 字數不定, 22×15cm’, 한양대본은 ‘四周雙邊 半郭 17×11.2cm, 無界, 13行35字, 頭註, 20.8×14.8cm’, 원광대본은 ‘四周雙邊 半郭 17×11.2cm, 有界, 半葉 行字數不定, 21×15cm’이다. 行字의 수와 테두리 여부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형태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9)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무쌍주해 보통신식책독』를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고 있다.

10) 부록으로는 ‘서식대요(書式大要), 축문서식(祝文書式), 동서양연대표(東西洋年代表), 조선각도군인구수급정도리수표(朝鮮各道郡人口數及程道里數表), 세계국명수부급인구표(世界國名首府及人口表)’가 첨부되어 있다.

11) 이 책의 두주는 한자어 밑에 독음 없이 그 어휘의 뜻을 설명하는 한글 풀이가 두 줄의 작은 글씨로 달려있다. 참고로 1면 두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膝下부모의실하, 支離오래된것, 浪遊백담으로로난것, 期待바라난것, 孤어려서아비일흔것, 苦楚고생하난것, 效果효력, 優等상등, 淆亂어지러운것, 錯雜엇것’

부자, 회동서관 지점인 광익서관·삼문사의 고정상, 영창서관의 강의영, 대성서관의 강은형, 화광서관·삼광서관의 강범형, 진흥서관의 강남형, 덕흥서관의 김동진 등이 대표적이다.<sup>12)</sup> 이들 출판사 주인들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척독집들을 그 자신이 직접 베끼거나 짜깁기하여 상투적인 척독서들을 대량 판매 목적으로 편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원저자의 척독집 저작권을 사서 출판업자인 자신의 이름을 ‘저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입하기도 하는 관행 또한 일반적이었다.<sup>13)</sup>

『무쌍주해 보통신식척독』의 저자 표기는 후자의 경우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출판사 운영자인 덕흥서관의 ‘김동진’과 실제 저자인 ‘이종국’이 모두 ‘저자’라는 이름으로 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책의 맨 앞장과 뒷장이 되는 속표지와 판권지에는 각각 ‘金東縉 著’(속표지), ‘著作兼發行者 金東縉’(판권지)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이 시작되는 1페이지에는 ‘著者 李鍾國’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원래 저자인 이종국이 서적상이자 출판업자인 김동진에게 저작권을 팔거나 넘겼을 정황을 짐작

12) 이들 출판사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들이 큰 도움을 준다.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 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박사논문, 2000. ; 이종국, 『개화기 출판활동의 한 징검-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9호, 2005. 12. ; 최호석, 『지송옥과 친구서림』, 『고소설연구』 19집, 2005. ; 최호석, 『영창서관의 고전소설 출판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37집, 2010. 5. ; 『박문서관과 노익형 관련 자료 모음』, 『근대서지』 제6호, 2012. 775-806쪽. ; 방효순, 『근대 출판문화 정착에 있어 경성서적업조합의 역할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학연구』 제38권 제2호(통권 63호), 한국출판학회, 2012. 12. 31~54쪽.

13) 박은경(2013), 위 논문, 61~66쪽, 2장 2절 ‘판권면 분석’ 부분에 이러한 당시 출판 관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당시 실용서의 저작자 개념이 엄밀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임상석의 다음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저작이라는 말의 정의도 엄밀하게 통용되지 않았으며 작자의 표기 역시 제대로 하지 않았던 당시의 출판 관행을 감안하고, 이 책이 당시의 다른 출판물보다 저자의 존재가 더 숨겨져 있던 교과서 형태임을 생각하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임상석, 『국한문체 작문법과 계몽기의 문화의식』, 『한국언어문화』 3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8. 89쪽.

하게 하며, 당시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출판 관행상 원저자와 그 저작권을 산 출판업자를 모두 ‘저자’라고 표기하는 중복 표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저자인 이종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로는 또 다른 척독집인 『증주부음 유행금옥척독(增註附音 流行金玉尺牘)』(덕흥서림, 1929, 1934, 1936)<sup>14</sup>의 저자이기도 하다는 점, 척독집의 문체로 미루어볼 때 유교적 구질서와 한문 문장에 익숙한 잔반 가문이나 중인 계층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척독 내용에 보이는 불교적 색채로 미루어볼 때 일정하게 불교 문화에 친화성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점 정도를 언급할 수 있을 듯하다.

편집체제 면에서 『보통신식척독』은 일반적인 편지예문집류 척독집의 구성인 서한 본문들의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 1~28번의 편지쌍은 가족친지간 왕복서신, 29~39번의 편지쌍은 회갑, 혼인 등 축하 서신 및 서식, 40~46번은 도적, 화재, 병환 등 위문 서신, 47~63번까지는 상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상례 위문, 64~83번까지는 절기 안부, 84~87번은 물건을 빌리는 내용의 서신이다. 체제상으로는 일상적 가정왕복 서신을 주로 하면서 축하, 위로, 절기 안부 등을 묻는 평범한 구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부록 또한 큰 특이사항 없이 당대 척독집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축문(祝文)’ 서식, 동서양연대표, 조선 각도의 면적 및 인구표, 세계 각 대륙의 주요 국가 및 수도 등이 소개되어 있다.

14) 이종국의 『증주부음 유행금옥척독(增註附音 流行金玉尺牘)』은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경희대학교 도서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 3. 이종국의 『보통신식척독』의 문체적 특징

이렇듯 일견 평범해 보이는 외견을 갖고 있는 『무쌍주해 보통신식척독』은 문체 면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 1920년대 이후 척독서 문체는 국문의 통사구조를 뼈대로 하여 한문 단어들이 배치된 ‘국주한중체(國主漢從體)’<sup>15)</sup>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1930년대로 넘어가서는 그러한 문체가 대세를 이루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이종국의 척독집은 1930년에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한문 통사구조에 기반한 ‘한주국중(漢主國從)’ 계열, 즉 근대계몽기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는 한문 위주의 국한문체를 선택하고 있다. 1920~30년대 척독집들의 일반적인 국한문체 예문들과 『보통신식척독』의 문체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의 예문들을 보도록 한다.

① 一城之內일성지내에 學校학교에 通學통학할 時시에도 下學後—二點하학후일이점이 超過초과하면 常상히 門門을 倚의하여 望망하더니 今금에는 他鄉타향에 遠離원리하여 不見불견한지 頗久과구하니 觀念관념과 思戀사련을 不勝불승하여 將次病狂장차병광을 成성할듯한지라 (노익형, 『註解附音新式尺牘』, 5면 답서)

② 近見근견한즉 新聞紙上신문지상에 浮浪者부랑자이라 指稱지칭하난 人인에 學生학생이 居多거다하다하니 可畏가외한 事사이로다 同廳동청의 友우일지라도 可가히 交道교도를 擇택지 아니치 못할지라 古人고인이 戒계하되 益者익자 | 三友삼우오 損者손자 | 三友삼우라 하였나니 青年청년의 發育時代발육시대에난 友우를 擇택함이 尤切우절하니라(강은형 『附音註解新式流行尺牘』, 4면 왕서)

③ 汝書中所言焦悶云者여서중소언초민운자는 安得不然也안득불연아리오 爲人

15) 국한문체 유행에 대한 논의 및 구체적인 국한문체 분석의 사례에 대해서는 임상석의 다음 저서가 큰 참고가 되었다.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子者事其親 위인자사기친에 居則治其養 거즉치기양하고 病則治其憂 병즉치기우논  
 是人理上固然也 시인리상고연아라 汝之出家時 여지출가시에 祖母及慈母之病患  
 危篤 조모급자모지병환위독을 見견하고 拘於事勢 구어사세 해야 不得侍湯 부득시탕하고  
 終乃離庭 종내리정인즉 於汝心 어여심에 豈不悚懼煎悶乎 기불송구전민호아 其如是  
 存心 기여시존심 호야 勿效滅倫悖常輩之忘親也 물효멸륜패상배지망친야 호라<sup>16)</sup> (이중  
 국, 3번 답서)

위 ①은 1920년에 발간된 노익형의 척독집 본문이다. 여기서는 이후 20~30년대 전체에 걸쳐 크게 유행한 국주한중(國主漢從)의 문체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보고 싶은 생각과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여’라는 뜻을 ‘不勝觀念思戀’과 같은 한문체로 쓰지 않고 ‘觀念관념과 思戀사련을 不勝불승하야와 같이 풀어써서,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나오는 우리말 어순에 한자를 낱말 단위로 배치하고 있다. 이는 옆에 부기된 한글 독음만을 따라 읽어도 뜻을 거의 파악할 수 있는, 국문 위주의 국한문체임을 알 수 있다. 1929년에 발간된 강은형의 척독집인 ②는 여기서 더욱 국문 통사구조가 전체 문장에 강하게 관철되어 한문이 단어 수준으로 나열되고 있다. ‘사귀의 도를 가리지 앓을 수 없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不可不擇交道’와 같은 한문 문체를 해체하여 ‘끼가히 交道교도를 擇택치 아니치 못할지라’와 같은 표현으로 풀어쓰고 있다. 이러한 국주한중의 국한문체는 한문 문장이나 문법에 기초가 없는 독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체임을 알 수 있다.

16) 네가 편지에서 근심 되고 민망스럽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찌 그렇지 앓을 수 있겠는가. 자식이 그 부모를 섬기매 평소에는 잘 봉양하고 병 드셨을 때 근심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것이다. 네가 집을 떠날 때 조모와 모친의 병환이 위독함을 보고도 일의 형편 때문에 탕약을 받들며 모시지 못하고 끝내 떠나야 했으니 네 마음이 어찌 두렵고 걱정되며 민망하지 않겠는가. 이 같은 마음을 보전하여 우리 강상을 어그러뜨리는 무리들이 부모조차 잇음을 본받지 말도록 하라.

이에 비해 『보통신식척독』에 실린 예문인 ③은 한문식 문법을 위주로 하는 한주국종(漢主國從)의 국한문체를 보여주고 있다. ‘安得~, 豈不~乎(어찌 ~하지 않겠는가)’, ‘勿~也(~하지 말라)’와 같은 한문식 문장체를 그대로 쓰고, ‘居則治其養, 病則治其憂’와 같이 대구를 맞춘 한문식 표현도 쓰이고 있으며, ‘爲人子者其親을 事하매’와 같이 우리말 어순으로 풀어 쓸 수 있는 구절이 ‘爲人子者事其親’이라는 한문으로 쓰여 있다. 한문 옆에 부기된 한글 독음을 읽는다 해도 그 의미가 즉각 파악되지 않으므로 해석의 과정이 필수적인 국한문체인 셈이다. 『보통신식척독』은 국문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던 1930년대에, 한문식 문장에 가까운 국한문체 서한을 실고 있는 보기 드문 텍스트이다.

더욱이 『보통신식척독』이 채택하고 있는 국한문체는 나름대로의 문체적 일관성과 미감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사실 1920~30년대의 척독서들은 국문과 한문의 혼용 정도와 방식 등에서 새로운 문체를 모색하던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한 텍스트 안에서도 일관되지 못한 양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문체가 미숙하거나 불균형한 면모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보통신식척독』은 87쌍, 174편의 서한들에서 저자가 세운 일정한 기준에 의거한 듯한 문체적 일관성과 정연함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 척독집에서는 한문식 문장의 틀을 가능한 해체하지 않고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하되, 전고나 용사가 들어있는 의고적인 한문 표현은 가능한 한 쓰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대여섯 자 내외에서 한문 구절을 분리함으로써, 지나치게 긴 한문 문장이 통째로 나오지 않게 하여 난이도를 조절하고 문장의 리듬감을 살리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若只寓目歎賞약지우목탄상하고 無一記言之可稱무일기언지가칭 즉 數百遍遊覽수백편유람이라도 終如不見종여불견으로 同동이니 不亦可愧乎불역가괴호야’

의 문장에서와 같이, ‘若, 亦’ 등의 어조사나 ‘~乎, ~也, ~耶’ 등의 종결 어미를 쓰는 한문 문법을 유지하면서, 각 구절의 글자 수를 균형감 있게 유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노련한 문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문 특유의 문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난삽함을 피하고, 한문 낭독 때 특유의 유려함이 구현되는 문체를 만들기 위한 저자 나름의 의도는 이 책 전체에 걸쳐 관철되고 있다.<sup>17)</sup> 이렇듯 한주국종 국한문체에 대한 저자 기준의 일관성 및 문체적 미감이 책 전반에 걸쳐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본 척독집의 매우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4. 이종국의 『보통신식척독』의 내용적 특징

이 장에서는 『보통신식척독』의 내용 면에 있어서의 전반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척독집은 내용 면에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서간의 본론이라 할 만한 중심 사안이 강화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논변이 상세하게 구현되어 있다는 점, 둘째, 생생하고 입체적인 상황 설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셋째, 서간 본문을 통해 저자가 ‘척독’이

17) 이종국과 같이 한문 중심의 문체를 채택했으나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김천희의 척독집인 『釋字附音最新金玉尺牘』(광한서림, 1929)과 그 문체를 비교하면 특징이 보다 여실히 드러난다. 김천희는 복고적인 한문 전통을 중시하는 듯한 척독 문체를 보여준다. 그는 유교 경전이나 중국 유명 문인들을 인용하는 순한문의 2행짜리 細註를 자주 사용하며, 의도적으로 전고가 있는 표현을 선택하여 쓰는 경향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이렇다. ‘父主暮年부주모년에 客外役役객외역역하사 風霜受苦풍상수고하시고 夙夜關心숙야관심하심이 總爲裕後之謨總爲裕後昆 총위유후지모시니 敢不以父母之心감불이부모지심으로 體念哉체념개잇가 詩禮孔子, 謂伯魚曰女學詩乎, 女學禮乎 嚴訓시례엄훈을 努力奉遵노력봉준이오니 萬勿煩掛만물번괘하시고 刻賜還次각사환차하오서 俾授教誨비수교회하시며 得免候門之望陶淵明歸去來辭云, 靚子候門득면후문지망게 하소서’, 김천희, 『釋字附音最新金玉尺牘』, 6번 답서.

라는 장르에 대해 갖고 있는 메타적 인식을 보여주는 척독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각 절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1) 중심 사안과 논변의 강화

1920~30년대의 대다수 척독집들은 편지쓰기의 투식과 전형적인 문구들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였다. 즉 편지를 보내는 당사자와 상대방의 관계에 따른 적절한 호칭을 선택하는 법을 제시해주고, 안부를 물을 때 적절하고도 정중하며 격이 있는 어휘의 선택 사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편지를 보내야 하는 핵심적 사안, 즉 일의 용건에 해당되는 본론 부분은 매우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상황으로 설정되어 두세 줄 정도로 간단히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편의 서간 내에서의 분량의 비율을 따진다면 문안 인사와 실제 본론 부분의 용건이 각각 절반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통신식척독』에 실려 있는 서한 예문들은 용건에 해당되는 본론 부분이 매우 강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서한 한 편의 자체 길이도 다른 척독집보다 평균 두세 배 이상의 길이이며, 그 속에서도 본론의 비중이 70~80% 정도로 중심 사안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부친이 학업을 격려하는 소재를 다룬 다음 편지에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예문으로 보기로 한다.

① 너의 중형이 동경 유학중임은 내가 아는 바이거니와 지난 번 온 편지를 보니 금번 춘기시험에 우등을 했다고 하였다. 이는 다만 내 마음에 기쁨이 될 뿐 아니라 형수가 일찍 홀로 되어 아비 없는 자식을 보살피고 양육함에 고초를 다한 효과가 비로소 오늘 나타남이니 실로 우리 가문의 경사이다.

② 너 또한 학과를 따라 독실히 공부하여 매번 시험에 반드시 우등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고 절대 게을리지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공부방법은 선후와 본말이 저절로 있으니 마땅히 그 순서를 따른 후에야 스스로 어질러지거나 복잡해지는 폐단이 없을 것이다. 그 대강을 요약해 말한다면 자기에게서 말미암아 남에게 미친다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선학의 수신지도(修身之道)를 하여 오직 근신하고 스스로를 지키며 헛되이 세상일을 논하지 말지어다.

③ 근래 젊은이들을 보니 매양 높고 기이함을 좋아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되 말하는 법은 반드시 외국어를 쓰고, 어제 처음 입학했는데 오늘 물리 화학을 능히 말하며, 역사는 반드시 서양 것을 말하고 지리도 반드시 서양 것을 말하고 인물도 반드시 서양 것을 말하여, 세계풍조와 고금역사를 모르는 것이 없는 듯하니 이 무슨 쾌습인가.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우선 자기를 낳아준 부친과 조부의 이름도 모르고 또 자기가 사는 지방의 사적도 모르니 어찌 탄식하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겠는가. 너는 삼가고 또 삼가서 한 번의 기거동작도, 한 마디의 말과 침묵도 방자하게 하지 말라.

④ 지금 네가 배우는 외국어는 현재 각 나라가 서로 통하는 시대에 배우지 않을 수 없으나 이는 학문은 아니다. 말을 교환할 때 부득이한 일일 뿐이니 다만 예에 따라 학습하고 그 약간의 통하여 해석하는 재주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거나 과장하지 말라.

⑤ 또 날마다 교유하며 따르는 친구는 반드시 나보다 나은 자를 택하여 깊은 교류를 맺고, 극장이나 공원 등에 왕래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sup>18)</sup>

18) ① 汝從兄之在東京遊學은 汝之所知이거니와 昨見來書호니 今春期試驗에 爲優等云호니 不但吾心之爲喜라 嫂氏之自早年으로 撫孤養育에 喫盡苦楚호신 效果가 始見於今日호니 實爲吾家慶幸이라 ② 汝亦逐課篤工하야 每受試驗에 必以優等으로 自期하고 切勿怠惰自棄호라 此做工方法이 自有先後本末호니 當循其次序然後에 自無淆亂錯雜之弊矣니라 略舉其概而言之호면 不過曰由己而及人也라 然則先學修身之道호야 惟勤慎自守호고 切勿妄論世事어다 ③ 近觀兒少輩가 每多好奇호야 對人談論에 語法은 必用外國語호고 昨日에 始入學호야 今日則能言物理化學호며 歷史則必稱西洋하고 地理則必稱西洋호고 人物則必稱西洋호야 世界風潮와 古今歷史를 有若無所不知호니 是何悖習고 叩其實하면 先不知自己所生之父祖名字호고 又不知自己所居地方事蹟호니 豈不可歎乎며 豈不可憎乎아

『보통신식척독』의 첫 서한이기도 한 위 서간문은 부친이 외지에서 학업중인 아들을 훈계하는 내용이다. 서간의 발신자인 부친은 여러 가지 사안을 예로 들어가면서 외지에 나간 아들의 학업을 권면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그는 친척의 소식과 가문의 정황을 예로 드는가 하면,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 훈계를 하기도 하고, 당시 세태를 꼬집으며 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과 염려를 아들에게 전하고 있다.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①부분은 동경 유학 중인 친척 조카가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일찍 과부가 된 형수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러한 우등 소식이 가문의 영광이 된다는 말로 아들에게 학업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②부분은 구체적인 공부법을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시험을 볼 때마다 우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게을러지거나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가 하면, 공부법에도 선후본말이 있으니 그 순서를 뒤섞지 말고 잘 지킬 것을 당부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는 공부하는 법뿐만 아니라 자기 수양의 방도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나의 경우에 미루어 남에게도 하라’는 것, 먼저 수신(修身)을 한 뒤 익히고 근신하며 세상일에 대해 선불리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③부분에서는 당시 젊은 세대가 며칠 배운 짧은 신학문을 자랑스레 떠벌리며 무엇에든 ‘서양을 들먹이는 모습을 ‘패습’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배운 것으로 자만하지 말 것을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④부분은 외국어는 꼭 배워야 하는 일(不得已之事)이지만 ‘학문(學問)’이 아님을 명시하면서 외

---

汝則愼之愼之호야 一動一靜과 一語一默을 無得放肆호며 ④ 今汝之講習하난 外國語난 方此各國交通時代에 不可不學이나 此非學問也라 乃交言上不得已之事也니 但隨例學習호고 勿以其小有通解로 爲自負誇張호라 ⑤ 又日日交遊趨逐은 必擇勝己者호야 以結深契호고 無事往來於劇場及公園等處난 其痛禁호라, 이종국, 『普通新式尺牘』, 1번 서한 ‘父가 在家하야 在外한 子에게 寄하난 書’ 중 ‘某兒見’.

국어를 배운다는 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대목이다. ⑤부분은 자기보다 나은 이를 친구 삼으라는 훈계와 더불어 공원 등에 가지 말 것을 당부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학업 격려 소재는 사실 거의 모든 척독서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소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척독집들은 이 내용을 2~3행의 본론에 ‘주색이나 유흥에 침혹하지 말 것, 불량한 급우들을 멀리할 것, 학업을 게을리하지 말 것’ 등의 상투적인 훈계로 전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sup>19)</sup> 그러나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통신식척독』에서는 학업 격려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간에서 본론의 길이가 13행이나 되는 긴 분량으로 되어 있거니와, ‘학업의 당부’라는 중심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소상하게 펼치는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공부 방법과 수신 요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②부분과 당대 학생들의 신학문에 대한 천박한 자랑의 태도를 경계하는 ③부분, 외국어를 ‘학문’이 아니라 도구이자 기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④부분 등은 전통적인 한문 서간 특유의 ‘논변(論辨) 및 의론(議論)’ 기능의 강화 양상을 잘 보여주는 서술 대목이다. 다음 예문 또한 그러한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경우이다.

① 나아가 아웁니다. 적이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 이에 품고하오니 바라건대 세세히 살핌을 내리시어 하교해 주십시오. 안문성공(安文成公)은 우리나라의 대현이오니 우리나라에 교궁(校宮)의 창건이 실로 선생으로부터 시작되었은즉 오늘날 우리 민족이 오랑캐를 면함도 오로지 선생이 부지해온 힘에 의지해옵입니다. …… 그러나 선성과 선현의 영을 편안케 하는 전례도

19) 똑같이 ‘학업 당부’ 소재를 다룬 노익형과 지송옥의 척독집에서는 2행~4행에 불과한 전형적인 학업 훈계 내용을 담고 있는 서한을 발견할 수 있다. 노익형의 3번 서간, 지송옥의 6번 서간 등을 참고.

스스로 절차가 있으니 서원이나 사당을 설립함은 개인이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임을 일찍이 어르신들로부터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문 성공의 자손 중 한 사람이 조상을 사모하는 정성으로 거만의 재산을 끌어모아 선생의 서원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 정성은 조상을 애모하는 처지로 보면 극히 가상하지만 이 일은 두려워 알지 못하겠사오니 어찌하겠습니까.

② 대저 선현을 숭배하여 받드는 일에 대해서는 원래 한 개인이 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자손 된 자가 능히 결정하여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공론이 있고 조정의 예전(禮典)의 법도가 있은즉 이 공론과 예전에 의하지 않고 누가 홀로 서원을 건립하여 제사를 올리겠는가. 만약 독자적으로 서원과 사당을 설립한다면 이는 무당이 신을 모시는 것에 불과하니 선현을 대하는 예가 이러한 것이 가하겠는가. …… 선현은 불천지위이니 그 자손 된 자는 다만 가묘에 삭망 분향과 기제사를 꺾하지 않을 뿐이다. 서원을 건립 여부에 어찌 그 자손이 관여하겠는가. 지금 잘 모르는 어떤 이가 이 일을 창설하려 하나 그 정성은 심히 가상하지만 그 일은 잘못된 것이다. 근일 무식한 일의 사례가 이와 같이 많으니 어찌 족히 책하겠는가.<sup>20)</sup>

20) ‘① 就悚竊有疑難之事하와 茲稟告하오니 伏望細細垂察하시와 下教焉하소서 安文成公은 卽東方大賢이온바 東方校宮之創建이 實自先生始焉인즉 今日惟吾民族之得免於左衽이 專賴先生扶持之力也라……然이나 先聖先賢安靈之典이 自由節次하야 設院設祠를 不可以個人私設은 曾有所聞知於長上前이온바 今聞安文成公子孫中一人이 以慕祖之誠으로 判得巨萬之財하야 設立先生之書院云하니 其誠則在於尊慕之地에 極爲嘉尙이오나 此事가 恐未知如何이고 ② 大抵先賢崇奉之事에 對하야난 本非一個人之所獨擅이오 亦非爲其子孫者之所能擅行이라 士林之公論이 自在하고 朝家之禮典이 有制인즉 此公論과 禮典을 不由하고 誰其獨自建院하야 以享之乎아 若獨自設院祠之則是난 巫瞽之崇神에 不過함이니 待先賢之禮가 如是者 | 其可乎아……先賢則爲不遷之位인 故로 爲其胄孫者난 但其家廟에 朔望焚香과 忌祭無闕할 而已라 書院之建不建이 何關於其子孫乎아 今未知何人이 創設此事이나 然이나 其誠則甚是可尙이오 其事則非矣라 近日無識之事가 例多類是하니 何足責也리오’, 이종국, 『普通新式尺牘』, 25번 서한 ‘老兄과 小弟間에 하난 書’.

위 예문은 『보통신식척독』의 25번 편지로, 안향(安珦)의 서원 재건축에 대한 의론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①부분은 문성공 안향의 서원을 그 자손들이 새로 지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선배에게 묻는 내용이며 ②부분은 그에 대한 선배의 답서이다.

여기서 ①은 전통적인 한문 서한에서 학문적 의견이나 견해를 묻는 질문의 형식으로 용건을 시작하고 있다. 자신에게 의심스럽고 풀기 어려운 일(疑難之事)이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받기 원한다는 것이다. 이 예문은 뒤이어 성리학을 수입한 고려말 유학자인 안향의 업적을 서술하고 그에 대한 숭모의 감정을 전하면서도, 그 가문에서 자손들이 사사로이 서원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법과 절차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자신의 견해를 전하면서 선배의 답변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답서인 ②에서는 선현의 숭봉지사(先賢崇奉之事)는 조정이나 사림의 의견 없이 진행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서원 건립에 그 자손이 나서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을 논하고 있다. 답서의 화자는 ‘공론(公論)’과 ‘예전(禮典)’에 의거하지 않은 제사는 무속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호되게 비판한 뒤, 자손의 입장에서 선현의 제사는 ‘불천지위(不遷之位)’이므로 가묘에서의 삭망분향과 기제사를 끊기지 않게 해야 할 뿐 서원 건립에 나서지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고 논박한다. 이러한 자신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정성은 가상하지만, 그 일은 잘못되었다(其誠則甚是可尙이오 其事則非矣라)’고 정리한 뒤, 근일 무식자의 일이 많으니 개탄스러우나 딱히 책망할 수도 없다고 서한을 마무리하고 있다.

『보통신식척독』에는 이렇듯 서한의 본론 부분인 중심 사안의 내용이 매우 강화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문답과 의론의 형태로 상세하게 전개하는 예문이 종종 발견된다.<sup>21)</sup> 사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시대의 문인 지식인

21) 학문론과 친족우애론을 보여주는 9번 편지(숙질간), 이익만 쫓는 세태 변화 속에서의

들의 한문 서간에서 학문과 사상을 교류할 때 주로 발견되는 것이다. 질문을 하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면서 더 자세한 의견을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며, 답변을 하는 쪽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과 독서의 배경을 밝히면서 사안의 내력과 교훈과 시시비비의 과정을 상세히 변증하는 것이다. 근대 척독집에서 이렇듯 의론과 논변을 통해 중심 내용을 강화한 예문을 넣고 있다는 것은, 저자가 당대 척독서의 역할을 ‘의례적인 안부와 상투어구의 학습’에만 국한하지 않고자 하는 저자 특유의 시각과 입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2) 생생하고 입체적인 상황 설정

『보통신식척독』은 근대 척독서들이 대부분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상황과 맥락을 설정해 놓는 것과 달리, 매우 구체적인 당대의 일상적 상황을 입체적인 배경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서 흥미롭다. ‘서포 개설’이라고 하는 공통된 소재를 담고 있는 세 권의 척독집에서의 예문을 통해 그러한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① 형께서 서포를 신설하시고 신구 서적을 산처럼 쌓으셔서 고객이 문에 가득하다 하오니 …… 형께서 작은 일을 비루히 여기지 않고 상업의 전쟁시대를 이롭게 쓰셔서 상업에 그 기술을 베푸시니 도주(陶朱)의 사업이 장차 멀지 않으심을 기꺼이 축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sup>22)</sup>

치세론을 보여주는 11번 편지(숙질간), 新學校 교과과정에 대한 의론을 주고받는 15번 편지(중형제간), 친구간 우애론을 펼치고 있는 27번 편지(평교간), 신구 학문의 의의에 대한 문답을 담고 있는 28번 편지(사제간), 도적을 만난 친구를 위로하면서 세태론과 민심론을 주고받는 41번 편지(평교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22) ‘똘똘이 書鋪를 新設하시고 新舊書籍을 山積하시고 顧客이 塡門이라 하오니……똘똘이 小事를 不卑하시고 商戰時代를 利用하시고 商業에 試術하시오니 陶朱의 事業이 將次不遠하심을 不勝欣賀이오며’, 노익형, 『註解附音新式尺牘』, 47번 왕서.

② 이익의 길이 아니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고 화폐의 이익이 아니면 헛되이 없어질 뿐이라. 이익의 시의가 어찌 중요하고 크지 않았는가. …… 지금 형께서 통구 대도에 서포를 크게 열어 사방에서 구매자가 시일로 답지하고 각지에서 청구하는 서한이 쌓여 수구수응에 눈코를 뜰 수 없으니<sup>23)</sup>

③ 백방으로 연구하되 천성이 상업에 어두워 어떤 업종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문자일 뿐이니 몇 종의 필요한 서적을 편집하여 출판발행할 수도 있겠으나 인쇄와 장책비와 종이값이 적지 않을 것이니 이 또한 자본이 문제입니다. …… 지금 세도를 보면 전일과 달라 상업이 아니면 빈곤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나 상업에 어두운 것은 우리 두 사람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우님이 계획한 서적 간행은 내 생각에도 또한 아주 깊이 부합합니다. 또 아우님의 학문은 옛 것에 박식하고 지금 것도 잘 아니, 혹 역사를 편집하던지 그 외 여타 소설 등 책을 저작하던지 하면 죽히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 반드시 애독자의 환영을 받을 것이니 이러한 경영이 방법에 가깝겠습니다.<sup>24)</sup>

근대 척독서에서 서포를 개설한 지인을 축하하는 내용은 자주 발견되는 소재인데, 위의 ①번과 ②번 예문은 당시의 전형적 척독서 저자인 노익형, 지송옥의 책의 일부로, 각각 그러한 사례의 전형적인 표현들을 잘

23) ‘人非利路면 無以生存이오 人無貨利면 徒爾死喪이라 利之時義가 豈不重且大與 아……今聞吾兄이 通衢大都에 書肆를 宏開하야 四方購買者ㅣ 時日逕至하고 各地請求者ㅣ 書翰이 堆積하야 隨求酬應에 眼鼻를 莫開하니’, 지송옥, 『附音註釋新式金玉尺牘』, 43번 왕답서

24) ‘百方研究하되 素昧商業하야 莫知何業之爲可이오 但所知者난 只是文字上而已 온즉 幾種必要書籍을 編纂하야 出版發行이 似好이나 其印刷與裝冊費와 紙本價가 似甚不少인즉 此亦資本問題也라……第見今世道가 異於前日하야 若非商業이면 貧窘을 不得免焉者난 非不知也나 商業之素昧난 吾兩人이 俱是一般이라…… 今日賢從之所籌劃한 書籍刊行은 於吾意에도 亦似甚合이라 且賢從之學文은 旣博古知今인즉 或歷史를 編輯하던지 外他小說等書를 著作하던지하면 足可爲人模範하야 必受愛讀者之歡迎矣리니 此之經營이 似是得策이라’, 이종국, 『普通新式尺牘』, 18번 왕답서.

보여주고 있다. 상업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던 당시 상황을 ‘商戰時代’, ‘營利者必居中, 求富者莫如商業’과 같은 표현으로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그러한 시대 풍조를 따라 개설한 서포가 이미 성황을 이루고 있음을 ‘신구서적이 산처럼 쌓여 있고 고객이 꼭 차있(新舊書籍山積, 顧客填門)’다거나 ‘각지에서 구매자가 답지하고 청구서들이 쌓이고(四方購者時日遞至, 各地請求者書翰堆積)’ 있다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이 예문들은 상업이 대세가 된 시대이니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상업을 시작했으면 성공 또한 당연하다는 식의 상투적인 상황 설정과 평면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보통신식척독』의 ③번 예문은 같은 소재인 ‘서포 개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상당히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서한은 이종동생이 이종형에게 보낸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는 ‘백방으로 연구해도 상업에 어두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아는 것은 오직 문자뿐이어서 책을 출판한다 해도 ‘인쇄·장책·지가 등 모든 것에 걱정이 앞선다’는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에 대해 답서를 보낸 이종형은 ‘세상의 도리가 예전과 달라 상업이 아니면 빈곤을 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과 함께, 자신 또한 상업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중세의 학문이 고금에 모두 밝으니 역사 편집이나 소설 저작을 하면 애독자가 생길 것’이라 격려하고 있다. 이는 상업이 시대의 대세이니 추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①, ②번 예문과는 달리, 이익과 상업 위주로 변한 시대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개인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그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방도를 찾기 위해 애쓰는 현실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예문은 바로 앞 서한과 내용상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사연의 개연성과 입체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앞

서한은 이종조카와 이숙(姨叔)간에 오간 편지로, 조카가 빈궁함이 심해져 ‘밥도 짓지 못할 형편’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청을 넣자 이모부가 답서에 약간의 돈을 보내면서 내년 봄에 자신의 아들과 의논하여 사업을 시작하여 가계를 일으키라는 권유를 했던 것이다.<sup>25)</sup> 이 상황이 ③번 예문으로 이어지면서 이모부의 명에 따라 생업을 시작하고자 이종형에게 서포 개설에 대한 방도를 의논하는 서한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설정은 기존의 척독서들이 보여주는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상황과는 달리, 생생하고 입체적인 맥락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황을 부각시키는 설정임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보통신식척독』의 입체적이고 생생한 상황 설정의 면모는 다른 예문들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아래 예문은 각각 외지로 나간 아들에게 집안 어른의 병세가 회복됨을 알리고 학업에 정진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친의 서한과, 지인의 아들이 걸린 병을 위문하면서 자신이 들은 주변의 쾌유 사례를 전하고 있는 서한이다.

① 네 편지중 말한 바 초조하고 민망하다 한 것은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식된 자가 양친을 섬길 때, 거하면 그 모시기를 다하고 병들면 근심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상 당연한 것이다……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윤리와 강상을 무너뜨리는 무리들이 양친을 잊어버리는 일을 본받지 말거라. 어머니의 병환은 네가 간 후에 곧 회복되셔서 지금은 침식 등의 절차가 평소와 같으시다. 네 모친의 종기는 비록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으나 다행히 좋은 약을 얻어 뿌리 독은 이미 뽑아 없애고 고름과 통증은 없으며 다만 환부 위

25) 懸鼎之窟이 目前에 在하거늘 明春을 何可待乎야 百爾思之에 不得已하와 茲冒廉伏告하오니 五百圓金을 某樣下惠하시와 使此濱死之侄로 無訪於枯魚之肆케하심을 伏望하나이다……東西推貸에 僅辦用副하니 以此爲奉率過歲之資하고 明春則另圖一營業하야 以爲濟家之計가 如何오, 이종국, 『普通新式尺牘』, 18번 서한 ‘姨叔에 上하난 書’

에 고약을 발라 종기가 아물기를 기다리니 기저동작이 누워 고생하던 것에 서는 크게 면하였다.<sup>26)</sup>

② 일전에 사직동 친우가 그 자식이 병들어 크게 염려하여 몇몇 곳에 있는 신의학박사에게 진찰을 받으니 모두 말하기를 폐와 장이 맺혀 있어 해부가 아니면 구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욱 깊은 근심을 더하였는데 그 집안에 칠십 먹은 노비가 고하기를, ‘서방님의 병은 심상하지 않은 듯하지만 또한 큰 걱정을 할 것도 아닙니다. 동침하여 상처를 접촉한 염려가 있는 듯하오니 급히 한의(漢醫)를 불러 화해재(和解材) 이삼 첩을 쓰십시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약을 쓰니 불과 이 첩만에 쾌히 효과를 보아 마치 구름 걷힌 푸른 하늘같은지라.<sup>27)</sup>

위 ①번 예문은 병든 모친과 조모의 곁에서 병수발을 하지 못함을 괴로워하던 아들이 부친에게 학교를 그만둘 수 있게 처분해 달라는 편지에 대한 답서이다. 이 답서에서 부친은 아들에게 학업을 계속하라는 답을 보내면서 두 환자의 구체적인 회복 상황을 상세히 전한다. 우선 그는 부모가 병에 걸렸을 때 ‘초조하고 민망하고 두렵고 괴로워함(焦悶悚惶)’은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마음이니 앞으로도 그 마음을 보존하라고 당부한 뒤, 조모의 병환은 회복되었으며 모친의 병도 차도가 있음을 전한다. 흥미로운

26) ‘汝書中所言焦悶云者는 安得不然也리오 爲人子者事其親에 居則致其養호고 病則致其憂는 是人理上固然也라……其如是存心호야 勿效滅倫悖常輩之忘親也하라 慈主病患은 汝去後에 因卽復常호야 今則寢食等節이 一如平昔호시고 汝慈母 瘡崇도 雖未完合이나 幸得良劑호야 根毒은 已爲拔去호고 無復濃汁與痛勢호며 只用上膏藥塗附호야 第待合瘡호니 起居動作이 快免臥床辛苦라, 이종국, 『普通新式尺牘』, 3번 답서.

27) ‘日前社稷洞親友가 以其子病으로 大念慮하야 受診於數處新醫學博士즉 皆云肺臟이 結核하야 若非解剖則不可救活이라하난지라 尤加深憂러니 其家七十奴婢가 告曰書房主之病이 似非尋常이오 亦似非大念慮이외다 似有犯房觸傷之慮이오니 急迎漢醫하야 用和解材二三貼하소서 主人이 聽罷에 如其言用藥이러니 不過二貼에 立見快效하야 怳若雲捲青天이라, 이종국, 『普通新式尺牘』, 47번 왕서.

것은 여기서 모친의 병을 ‘중기’라는 병증으로 구체화해서 제시했을 뿐 아니라, 회복중인 과정을 ‘다행히 좋은 약을 씌, 뿌리의 독은 제거, 고름과 통증은 없어짐, 지금은 고약만 바름, 누워 지내는 상태는 면함’이라고 하여 매우 상세하게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번 예문은 지인의 아들이 걸린 병을 위문하면서 당시의 ‘신의학(新醫學)’과 ‘서양식 의원(西醫)’을 맹신하는 풍조를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특히 편지의 화자가 최근에 수술을 권유를 받았으나 거절하고 여종의 말대로 한약을 써서 나온 ‘사직동 친우’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친구는 신의학 박사에게 ‘해부’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나이 많은 노비의 의견, 즉 ‘서방님의 병은 심상치는 않으나 큰 병 또한 아니라’는 말을 따라 ‘경험과 공부가 많은 한의(漢醫)’에게 두 첩의 한약을 지어 먹이고는 자식의 병을 완쾌시켰다는 것이다. 이 서한 또한 서한의 화자가 자신이 들은 주변의 사례를 이렇듯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생생한 인상을 남긴다.

이 외에도 외지에서 유학중인 서한 속 화자가 밥값이 많이 드니 친구들과 함께 집을 얻어 밥 짓는 노파를 두고 싶다는 의견을 상의하는 편지<sup>28)</sup>라든가, 아내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온천 요양 계획을 알리며 그 비용을 장인에게 요청하는 편지<sup>29)</sup> 등은 당시 유학생이나 유한한 젊은 부부의 생활 배경을 보여준다. 또한 지인의 딸 혼사를 축하하는 서한에 빈한함 때

28) 就伏棟修業年限을 計之則尙餘幾年之多이온디 若長久買食於旅館이면 每朔費用이 爲二十圓이오니 其支拂之難이 伏爲悶慮故로 方與同校生幾人으로 相議하야 得貫屋一棟하야 置炊飯之一老婆하고 買糧合食則較諸旅館에 似可爲經濟故로 茲稟達하오니 父主還次後卽爲下議하시와, 이종국, 『普通新式尺牘』, 6번 ‘從子在外하야 上伯父書’

29) 이종국, 『普通新式尺牘』, 20번 ‘聘丈前에 上하난 書’

문에 혼처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을 묘사<sup>30)</sup>하고 있다거나, 집안에 도적이 든 친구를 위문하는 서한에서는 당대의 인심 세태와 구체적인 정황 묘사<sup>31)</sup>를 전해주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보통신식척독』에는 서한 속 화자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입체적으로 부각시키는가 하면, 다른 척독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개별적인 소재를 통해 생생한 배경 설정을 한다든가 상황의 맥락을 강화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척독에 대한 메타적 인식으로써의 척독론 제시

『보통신식척독』은 특이하게도 ‘척독’이라는 자신의 장르 자체에 대한 메타적 인식을 드러내는 서한을 매우 여러 편 담고 있다.<sup>32)</sup> 이들 서한은 당대에 유통되고 있던 실제 척독집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척독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척독이라는 장르가 가져야 할 당위적 요소나 원칙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sup>33)</sup>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30) 이종국, 『普通新式尺牘』, 32번 ‘賀人女婚’

31) 이종국, 『普通新式尺牘』, 41번 ‘問人逢賊’

32) 전형적인 척독집 부류에서도 간혹 척독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에서 보이는 척독 인식은 ‘척독론’의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서한 문체가 차츰 국한문을 혼용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거나 서한의 원래 효용이 멀리 떨어진 사이에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現今札翰은 前日로 不同하여 鮮漢文을 互用함으로 其制作이 極히 容易하거늘 一次도 自手心劃은 得見치 못하니, 노익형 8번 서한 ; ‘古人簡牘을 許多考閱하니 劉弘書의 丁寧款密과 徐湛之의 音詞流暢은 非後學의 可及이오 餘外로 上에 久別離를 言하고 下에 長相思를 言하면 足矣라 하나 此단 千里面談을 不可詳陳이오 兩人心事를 不可說道라’, 지송옥, 54번 서한.

33) 『普通新式尺牘』에서 이러한 ‘척독론’을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서한은 2, 4, 8, 13, 14번의 총 5편이며, 간접적으로 척독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서한도



이렇듯 당대 유통되고 있었던 실존 척독집의 문체를 구체적인 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대담한 비판적 자세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비판 대상으로 거론된 노익형의 『주해부음신식척독』은 문체, 상황 설정, 저자의 측면에서 가장 전형성이 강한 척독집으로, 이후 20~30년대 다른 척독집들에 매우 여러 차례 서한 예문이 재수록되었을 만큼 당대 척독집 중에서는 대표성과 인지도를 가진 책이었다.<sup>35)</sup> 이렇듯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척독집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결국 『보통신식척독』이 ‘척독’이라는 장르에 대해 남다른 자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척독 장르에 대해 나름의 자부심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척독서가 보여주어야 할 바람직한 문체와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척독의 지향에 대한 저자 나름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① 사람의 문견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하면 그 사람의 서찰을 보면 저절로 알 수 있다.<sup>36)</sup>

② 대저 서찰은 말을 바꾸고 대신하여 그 정과 뜻을 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용을 조율함이 각각 다르니, 말로써 말함은 되지만 글로써 말함은 안되는 말도 있고, 글로써 말함은 되지만 말로써 말함은 안되는 말도 있

35) 이 척독집은 서한 규범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예문을 순한문으로 제시한 1900~1910년대 ‘편지규범집류’ 척독집과 달리, 평이한 국한문체 예문 중심의 1920~30년대 ‘편지예문집류’ 척독집의 최초 형태를 보여주는 책이다. 또한 이 시대 출판사 운영자들은 척독서의 주요한 저자 그룹이었는데, 이들이 펴낸 척독집은 특히 전형성과 상투성이 강할 뿐 아니라 기존의 척독집 서한을 모방하거나 재수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대해서는 홍인숙, 『1920~30년대 편지예문집류 척독집의 양상과 그 특장』, 『동양고전연구』51집, 2013. 6 참조

36) ‘人之聞見의 有無를 知得코져 ㅎ면 其人의 書札를 見ㅎ면 自可知矣라’, 이종국, 『普通新式尺牘』, 2번 서한.

다.<sup>37)</sup>

③ 종제는 원래 독실한 공부를 하였고 가정에서의 문견도 겸하였으니 무릇 왕복하는 서신글에 어찌 거칠게 생략하고 잘못에 이르는 곳이 있겠는가. 또 민활한 재주가 많아 저술한 글의 체제가 간이면서도 자세하니 한 마디 한 구절이 헛되거나 소략한 것이 전혀 없고 모두 정과 정성을 곡진하게 하므로 읽는 사람이 아끼고 감탄함을 그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지금 이 저본이 족히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것을 미리 깊이 믿을 만하다.<sup>38)</sup>

④ 최근 간행한 소위 척독이라는 책들이 거의 모두 청탁이 불분명하고, 그 몽매하고 무식한 말로 스스로 문사가 성한 글이라 일컬으며, 망령되게도 부형께 보내는 말을 덧붙이니 가히 탄식할 만하다. 만약 이런 척독책을 학습한다면 도리어 배우지 않음만 못하니, 너는 책을 잘 골라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냐. 대저 안부를 여쭙는 서찰은 다만 정을 통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면담과 같아 먼저 안부를 여쭙고 그 다음에 사안에 근거하여 논의를 하는 것이니 이것이 큰 대략이다. 비록 평교간에서도 공연히 강산풍월로 헛되이 문장의 기세를 펼치며, 종이에 가득한 긴 편지가 모두 이것이 방탕한 무리의 연애소설이니 도리어 곡진하지 않은 혐의에 유해함이 있거늘, 하물며 부형 앞으로 보내는 편지에 어찌 이러한 문자를 쓰겠는가. 다만 사실을 들어 있는 것을 있다 하고 없는 것을 없다 할 뿐이요, 장황하게 한만 한 이야기를 쓰는 것은 결코 불가한 일이다.<sup>39)</sup>

37) ‘大抵書札은 是言語를 替代호야 通其情意이나 然이나 調用이 各殊호니 有可以言爲言이 不可以書爲言之語호고 有可以書爲言이 不可以言爲言之語이라’, 이종국, 『普通新式尺牘』, 8면 서한.

38) ‘賢從은 素抱篤實之工하고 兼有家庭聞見하니 凡於往復文字에 安有疏略致誤處리오 且多敏活之才하야 著作制裁가 簡易精詳하야 一語一句가 都不虛踈하고 皆曲盡情款故로 令人讀之에 愛價不已하니 今此著本이 足可爲人模範을 豫爲深信이라’, 이종국, 『普通新式尺牘』, 16면 서한.

39) ‘近日刊行호 所謂尺牘이 舉多不分清濁호고 以其蒙昧無識之語로 自謂文華라호야 妄加於父兄前호니 可歎이라 若此等尺牘을 學習則反不如不學이니 汝能擇之而去短取長乎아 大抵寒暄筭은 只是通情인즉 須是面談과 如히 先問安否호고 次及因事論議이니 此其大略也라 雖平交間이라도 空然이 江山風月로 虛張文勢호

위 예문 ①은 척독이라는 장르에 대한 자부심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다. 서찰은 그 사람의 ‘문견(聞見)의 유무’를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문견’, 즉 ‘보고 들은 것’이라는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한문 교양의 수준, 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어 저절로 드러나는 전통적 지식의 배경을 가리키는 것일 터이다. 즉 이 대목은 서찰이 그것을 쓰는 사람의 한문 수준을 자연스럽게 노출하게 되는 계기라는 인식, 또한 서찰이 전통적인 지적 교양이 튼튼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 장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②는 척독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문체와 표현의 기준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예문에서는 원래 서한의 목적이 ‘마음을 통하는 것’이지만 ‘언어의 쓰임을 고르는 법은 각각 다르다(調用이 各殊)’고 지적한다. 여기서 ‘각기 다르게(各殊)’ 써야 한다고 구별한 용례의 상황은 ‘말’과 ‘글’의 상태로, 편지글을 쓸 때는 말할 때의 구어적인 표현과는 다른 언어를 써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다음 문장에서 ‘말할 때는 쓸 수 있는 말을 글로 쓸 때는 사용할 수 없고, 글로 쓸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말을 말할 때는 쓸 수 없음(有可以言爲言이 不可以書爲言之語<sup>ㄱ</sup>고 有可以書爲言이 不可以言爲言之語)’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것은, ‘말과 글에서 각각 허용되는 표현이 다름’을 힘주어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인용된 노익형 척독집의 문체, 즉 ‘행차 하신 후 기적소리만 바람에 들려오면 남문역을 향해 조부의 모습을 그리워 한다’와 같은 구어적인 표현은 ‘문견 없는 무리들의 몽매한 일상의 이야기(但無聞見輩의 蒙昧常談)’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야 滿紙長書가 都是若蕩子輩의 戀愛小說<sup>ㄱ</sup>이 反有害於不曲盡之嫌이거든 況父兄前에 何敢用此等文字乎아 但事實을 擧<sup>ㄴ</sup>야 指有爲有<sup>ㄷ</sup>고 指無爲無<sup>ㄹ</sup>而已오 張皇汗漫之說은 決不可用也니라, 이종국, 『普通新式尺牘』, 4면 서한.

따라서 이 화자는 그런 수준의 책은 ‘눈에 대서도 안된다’고 단호하게 혹평을 내리고 있다.

올바른 척독집이 갖춰야 할 기준이나 미덕에 대한 논의는 ③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예문은 척독집을 펴낸 종제(從弟)를 격려하는 설정의 서한인데, 그러한 상황 설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척독집’이 가져야 할 성격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③의 내용에 따르면 좋은 척독집의 기준 중 하나는 저술한 사람의 수준이다. 우선 그것을 저술한 이가 ‘독실한 공부’를 바탕으로 삼아야 하고 ‘가정에서 보고 들은 것’이 많아야만 ‘거칠게 생략하거나 오류에 이르러’ 실수가 없다는 것이다. 척독집을 저술할 정도의 저자가 응당 갖춰야 할 한학의 수준이라든가, 가문 배경에 대한 기준을 사뭇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당대에 주류 척독집들이 중인 이하 출신의 서점 운영자들에 의해 저작되고 유통되었던 점, 또한 그러한 척독집들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과 예문을 거듭 베끼거나 재수룩하고 있던 점을 겨냥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척독집이라는 장르의 책은 그렇게 대충 짜깁기하듯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저자 나름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여기에 더하여 좋은 척독집이 갖춰야 할 미덕으로 제시된 요소는 ‘저작제재의 간이정상함’과 ‘일어일구의 곡진정관함’이다. 책의 체제가 간명하면서도 자세하고, 말의 표현이 곡진하고 정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예문 ④는 척독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이 예문에서는 당대 척독집들을 통틀어 전반적으로 ‘칭탁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책은 ‘배우지 않음만 못하다’라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특히 이 예문에서는 20~30년대 들어 대세가 되기 시작한 연애편지의 문체를 거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공연한 강산풍월’, ‘헛되이 문장의

기세를 펼침’, ‘종이에 가득 방탕한 무리의 연애소설’ 등의 구절은 모두 그러한 새로운 국문 연애편지의 문체나 표현의 영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행에 대하여 서한 속 화자는 ‘꼭진하지 않은 혐의에 유해함이 있다(有害於不曲盡之嫌)’고 평가한다. 즉 한껏 자신의 감정을 감상적으로 과장하는 그 당시 편지의 ‘장황한만지설(張皇汗漫之說)’의 수사적 표현이 오히려 편지가 갖춰야 할 ‘꼭진함’을 해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서한에서 강조하는 바 편지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은 ‘다만 사실에 의거하여 있는 것을 있다 하고 없는 것을 없다할 뿐(但事實을 擧호야 指有爲有호고 指無爲無호를 而已)’이라는 것이다. 이는 척독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나름의 원칙을 알려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즉 해야 할 말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뿐, 수사적인 표현과 미사여구는 서한이라는 장르에서 불필요하며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보통신식척독』은 척독, 즉 서한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남다른 자의식을 ‘척독론’의 차원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당대 유행되던 주류 척독집에 대한 강한 반발의식과 비판의 자세, 척독이라는 장르에 대한 자부심과 의의 부여, 척독집의 바람직한 문체와 표현에 대한 기준 제시의 차원 등 척독 장르 자체에 대한 저자의 고민과 견해가 척독집의 곳곳에서 여러 편의 서한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5. 『무쌍주해 보통신식척독』의 가치와 의의

본고는 근대 척독서 중에서 이종국의 『무쌍주해 보통신식척독』이라는

자료를 중심으로, 이 책이 갖고 있는 척독집으로써의 개별적이고 특징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1920~30년대 척독서들이 대체로 상호모방과 짜깁기 중심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에 내려진, ‘물개성적이고 저급한 실용서적’이라고 하는 일반적 평가와는 거리가 먼 특징들을 이 책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통신식척독』은 문체적 차원에서 그 시대의 일반 척독서들이 국문 중심의 국한문체로 쓰여지던 경향과 반대로, 한문 문법을 중시하는 일관되고 정돈된 국한문체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이 책은 내용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강한 저자의 개성과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일반적인 척독서에서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던 중심사안과 논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통해 이 척독집의 저자가 전통적인 한문 서찰의 학문적 의론 기능을 중시하고 있으며, 근대 척독의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안부 기능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책이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상황 설정과 배경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근대 척독집이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점과 달리, 『보통신식척독』은 생생하고 실제 있을 법한 상황의 구체성을 확보한 서한 본문을 자주 보여주고 있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책이 척독이라는 장르에 대한 메타적 인식으로써의 ‘척독론’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책은 당대의 유행 척독집이나 국문 편지투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거나 문견 없는 척독집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내면서, 좋은 척독서가 가져야 할 기준과 원칙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이종국의 『보통신식척독』은 당대의 일반적인 척독서의 경향과는 상당히 다른 가치와 의의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전형적인 근대 척독서들이 이상적이고 상투적인 상황 설정을 통

해 근대적 삶에 대한 선망을 표현하고 시대 순응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던 데 비해,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자의 개성과 세계관이 매우 강하게 표현되고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근대 척독서들은 우선 편저자의 개성과 취향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을 법한 상황’, 즉 개연성 높은 상투적인 상황의 설정과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관습적이고 관행적인 표현의 제시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그러한 평면적인 상황과 관행적인 표현을 수단으로 삼아, 세속적인 향유와 근대적 삶의 성공적인 성취를 장려하는 세계관을 표방했다. 즉 기존의 유행 척독집들은 소위 시대와 풍조에 대해 매우 ‘순응적’이고 ‘협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종국의 척독집은 문체와 표현 차원에서부터 이미 저자가 차별화된 세계관과 가치 지향을 갖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는 다소 어렵게 보일 수 있는 한문 중심의 국한문체를 선택하여 일관된 문체를 보여줌으로써 한문 서한으로써의 격조를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그는 투식구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안의 여러 면모를 따져 묻는 의론적 성격과 입체적 상황을 강화하면서 세상에 대응하는 자세와 척독 장르에 대한 소신을 전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서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학업 수련의 방법, 양친이나 자식의 우환에 대한 걱정, 서포 개설 방법 의논’과 같은 개인적인 상황에서부터, ‘안향 자손의 서원 건축, 당시 학생들의 서양풍 추수 현상, 대중들의 물질중심주의, 민족주의 정신의 필요’<sup>40)</sup>와 같이 사회적 사건과 시대적 풍조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비판적 관심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즉 이 책은 근대 척독서라는 구태의연하게 보이는 실용 서적류의

40) 『보통신식척독』의 서한 본문에 들어 있는 ‘젊은이들의 맹목적인 서양 추수 태도에 대한 비판, 당대 대중들의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 민족주의적 자각의 태도’의 내용은 다음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홍인숙(2013), 앞 논문, 138~142쪽 참고.

자료군도, 그 나름대로의 시대적 대응의 자세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저자 특유의 가치관과 장르 인식을 전달할 수 있는 개성적인 텍스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100여 종이 넘는 근대 척독서 중에서 저자만의 독특한 개성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개별 척독집 연구로 『보통신식척독』이라는 자료를 살펴보았다. 앞으로도 이러한 텍스트 고유의 개성과 의미를 갖고 있는 근대 척독집 자료의 발굴과 해석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 척독서 자료군 전체의 위상을 재조명하고 그 문화적 의의에 대한 심도 있는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김천희(金天熙), 『석자부음최신금옥척독(釋字附音最新金玉尺牘)』, 광한서림(廣韓書林), 1929.
- 노익형(盧益亨), 『주해부음신식척독(註解附音新式尺牘)』, 박문서관(博文書館), 1920.
- 이종국(李鍾國), 『무쌍주해보통신식척독(無雙註解普通新式尺牘)』, 덕흥서림(德興書林), 1930.
- 지송욱(池松旭), 『부음주석신식금옥척독(附音註釋新式金玉尺牘)』, 신구서림(新舊書林), 1923.
- 『박문서관과 노익형 관련 자료 모음』, 『근대서지』제6호, 2012, 775~806쪽.

## 2. 논저

- 김효경, 「18세기 간찰교본 簡式類編 연구」, 『奎章閣』9집, 2003, 133~154쪽.
- 류준경, 「방각본 간찰교본 연구」, 『漢文古典研究』18집, 2009, 257~291쪽.
- 박은경, 「文範과 時文으로서의 근대 척독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3, 1~172쪽.
- 박해남, 「근대 척독 자료집 <척독완편>의 출판 현황과 배경」, 『반교어문연구』32집, 2012, 233~258쪽.
-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 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박사논문, 2000, 1~183쪽.
- \_\_\_\_\_, 「근대 출판문화 정착에 있어 경성서적업조합의 역할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학연구』제38권 제2호(통권 63호), 한국출판학회, 2012. 12. 31~54쪽.
- 이경현 『1910년대 신문관의 문학 기획과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3, 1~273쪽.
- 이기훈, 「독서의 근대, 근대의 독서-1920년대의 책읽기」, 『역사문제연구』7집, 2001. 12, 11~71쪽.
- 이종국, 「개화기 출판활동의 한 징험-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9호, 2005, 215~252쪽.
- 임상석, 「국한문체 작문법과 계몽기의 문화의식」, 『한국언어문화』33집, 한국언어

문화학회, 2007. 8, 81~103쪽.

\_\_\_\_\_,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1~408쪽.

최호석, 『지송옥과 신구서림』, 『고소설연구』 19집, 2005, 255~282쪽.

\_\_\_\_\_, 『영창서관의 고전소설 출판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37집, 2010. 5., 349~379쪽.

홍인숙, 『근대 척독집 간행현황과 시대별 변화 양상』, 『한국고전연구』 24집, 2011.12., 325~358쪽.

\_\_\_\_\_, 『1920~30년대 ‘편지예문집류 척독집’의 양상과 그 특징』, 『동양고전연구』 51집, 2013. 6., 120~160쪽.

ABSTRACT
----------

## Study of Individual Textbook for writing Cheokdok in 1930's

-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Lee, jong-guk(李鍾國)'s

『Moossangjuhae Botongsinsik Cheok-dok』(1930)

Hong, In-sook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eaning of Lee, jong-guk's 『Moossangjuhae Botongsinsik Cheok-dok(無雙註解 普通新式尺牘)』(1930) which has the value as the independent data among over 100 kinds of modern collection of cheok-dok. This was a part of the research on modern cheok-dok collection which was used as the textbook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characters in the early part of the modern times, intended to emphasize the meaning of this data with the meaningful and individual cheok-dok collection which revealed the writer's unique individuality and values. For this, the researcher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eaning which the content of the example sentences of the letter has, after checking the basic bibliography and analyzing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Content characteristics of 『Botongsinsik Cheok-dok』 could be examined as three points as follows. First, reinforcement of central issue and argument, second, vivid and three-dimensional situation set-up, third, meta realization of the genre, cheok-dok, was revealed. That is, this text was the work which well showed the writer's recognition on genre and his individuality in a regard that it laid stress on the letters in Chinese and strongly expressed its belief in cheok-dok genre. Also, this text is a meaningful data model that shows a fact that the practical book as modern cheok-dok can develop as a text which contains changes of the times and the response to it.

**Key Words** Lee, jong-guk, 『Moossangjuhae Botongsinsik Cheok-dok(無雙註解 普通新式尺牘)』(1930), reinforcement of central issue and argument, vivid situation set-up, meta realization of the cheok-dok

논문투고일	: 2013. 10. 16
심사완료일	: 2013. 10. 22
게재확정일	: 2013. 11. 26